

2020 국가직 7급 : 유대종 강사 해설

문1. 발문을 보자. 불규칙이 아닌 것을 묻고 있다. 그럼 규칙을 찾는 것이다. ㄹ탈락과 ㄷ탈락을 먼저 찾아라.

- ① 흐르+어 => 흘러(어간불규칙 : ㅡ빠지고, ㄹ들어와. 그리고 ㄹㄹ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르'불규칙이라 얘기했다.)
- ② 파랑+아 => 파래(어간어미들다불규칙 : 누레, 하애 같이 외우자.)
- ③ 이르+어 => 이르러('러'불규칙 '이르+어'에서 '어'만 '러'로 변경)
- ④ 잠그+아 => 잠가 (ㄷ탈락은 규칙이라고 했다. ㄷ탈락과 ㄹ탈락은 규칙 탈락임)

* 규칙을 알아야 불규칙도 해결된다.

문2. 다의어로 묶인 것 찾기. 즉 의미적 연관성이 없는 것들을 삭제할 것.

- ① eye / 씹 (동음이의어)
- ② write / use (동음이의어)
- ③ 메인 의미, 주변적 의미(실체가 중심적이면, 추상적인 것이 주변적이다.) (다의어)
- ④ 세차게 불다. / 식물이 나오게 하는 작용(동음이의어)

* 다리의 동음이의어, 다의어 관계 정도는 알아 두자.

문3. 공감적 대화?

<보기>를 보자. 화법의 전형적인 상호 교섭 원리.

not A but B 구문이 눈에 보이지.

- 1. 잘못 지적하면 버려.
- 2. 해결책 제시하면 버려.

=> 존중, 이해

①번이 정답. 다른 것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보기>에 근거하지 않으면 틀린 것이지.
2010학년도 수능 만복사저포기 <보기>문제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문4. 글의 전개 순서 (일반에서 구체, 지시어 접속어, 대비, 문제 해결 등의 구조적 질서를 생각하며 읽자.

일반적인 이야기 (나) : 소통 방식 일반화에서 면 대 면 소통으로 구체화.

(라) : 면 대 면에 대한 구체적 설명

(가) :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이라 제약임.(공통 단어로 연결, 문제점)

(다) : '그러나' 기점으로 그런 제약에서 벗어남을 드러냄.(문제에 대한 해결)

(가)-(다) 순서를 문제 해결 방식을 기억하고, 엮고 들어갔어야지.

그럼 쉽게 ①번 나옴

문5.

'땅 지, 두터울 후'로 바로 종료.

②번 정답.

문6. 문학 적절하지 않은 문제는, 정서, 갈등, 태도의 대척점을 잘 잡자.

① 태도 정리 : 난 내 할 일만 한다.

② 반성인가? 임을 위해서 그랬다는 변명임.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지. 태도에서 벗어남.

답은 ②번.

③ 원관념, 보조 관념을 통한 지향 정리 : 임 향한 내 뜻(원관념), 시내(보조관념)

④ 감정이입을 통해 아버이를 그리워함. 효를 지향함.

문7.

①요점은~ 노력하자는 것이다.

②보어 : 되다, 아니다 앞에 이 OR 가. 그리고 개가 주어진 안 돼.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서 무엇이가 생각.

'내가 무엇이 되다.'

에서, 되다, 아니다 앞에 이 OR 가 그러므로 보어라고 하면 된다.

③ 부사어가 빠졌다. 누구와 동행할 것이다. 정답.

앞으로 높임 표현에서도 목적어를 높였는지 부사어를 높였는지 물어볼 것임.

잘 정리하길 바람.

④ 사람을 경계하고, 사람에 의지함. 부사어 누락 맞춤

앞으로 서술어 자릿수 나올 확률 높음. 정리해 두세요.

문8. 황만근(수능 6평에도 나옴. 출제자가 비슷한 듯)

① 애써 가르치려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본받을 만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줌.

② 그의 근면성실 부지런한 면모를 알 수 있다. 정답! 이해 득실을 따져 움직이는 존재가 아님.

③ 놀람과 부담은 다르지.(정서적 범주의 문제)

④ 건강이 나빠졌는지는 알 수 없다.(알 수 없는 정보 삽입)

2012학년도 수능 <돌다리> 정도 풀어보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문9. 추론적 사고 (사실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A. 영문자와 달리 한글은

: 한글과 영문자의 대비 (한글 : 다양 인코딩)

B. 한글 구현 방식 : 조합형(코드 간 조합) / 완성형 (각각의 독립코드)

조합형과 완성형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최종 구현 글자 동일, 할당과 구현 순서

C. 완성형의 문제 해결 구조(못 쓰는 글자 발생 -> 유니코드 2.0 개발)

①번이 정답(최신 완성형으로 가능. 문제 해결 구조 독해에 익숙한지 테스트)

② : 문제(2,000여자)에 대한 해결책(11,172자) C.

③ : 영문은 조합 글자가 아니므로. 'A'.

④ : 공통적 과정 'B'

문10.

1문단 : 프리덤 / 리버티의 구분. (대비 코드)

프리덤 : 제약의 부재

리버티 : 강제의 부재(물리적 힘 OR 위협)

2문단 : 예시는 핵심에 협력하자.

일부 국가의 어떤 시민 : 리버티가 없음.

A국 : 리버티는 있음.

3문단 : 자유지상주의자 : 강제의 극소화(리버티 추구)

① 제약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닌, 강제로부터의 자유.

② 리버티 보장임. 리버티와 프리덤을 구분할 것.

③ 알 수 없는 정보임.

④ 정부 허가가 필요한 것은 리버티의 제약. 따라서 2문단의 일부 국가의 어떤 시민은 리버티 부재. A국 시민은 리버티 존재. 그러나 프리덤이 아니고, 그것을 자유지상주의자가 추구하는 것도 아님. 정답!

문11. 괄호가 맨 뒤에 있으면 결론부(블랭크 문제의 포인트는 역접 접속어에 유의)

A 그러나 B

후천적이므로 교화가 넓게 베풀어지면서 범죄 건수가 줄어들면, 교화를 넓게 베풀는 것이 좋겠지.

답은 ③번.

문12. 운문

여승이 합장을 한다. 아는 사람일 것이다.

근데 왜 내가 서럽나?

갑자기 2연을 보니 평안도로 공간이 이질적으로 바뀐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시간도 이질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승이 갑자기 옥수수를 파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즉, 여승이 왜 여승이 되었는가에 대한 사연 설명을 하기 위해

현재 - 과거의 구조로 시상을 전개한 것이다.

역순행이므로, 답은 ③번.

① 가지취, 섯별

② 도라지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다.

④ 차게 울었다.(청각의 촉각화)

문13. 추론적 사고(사실적 사고에 기반하라.)

1문단 : 로컬푸드의 일반적 정의 (50~100KM, 해당 지역 농식품)

(예외적 정의도 있다. 건강/신뢰/친환경성 고려하기 때문)

2문단 : 로컬푸드 운동 : 친환경, 자립적, 지속가능 먹거리 -> 생산, 유통, 소비 -> 공동체적 노력

: 농업의 해체, 식품 안정성의 위기(문제점) : 문제 해결의 구조를 떠올리자. 즉, 해결인 로컬푸드 운동의 배경이 나와 있다.(거대 자본으로 인한 농약의 과다 사용(문제의 원인) -> 식품과 환경의 위기(문제) -> 로컬 푸드 운동(해결))

④번이 정답. 문제를 어떻게 해결책에 넣음. 틀림

문14. 고전산문

모두 다 해석하려 들지 말고,

목적은 나로 인해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는 자량.

더불어 세요라는 바늘의 공을 두드리지게 하므로 정답은 ③번.

- ① 돌려서 끼기 없음
- ②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없음. 충고가 목적 아님.
- ③ 다투지 말라고 했을 뿐 상대방의 허점을 드러낸 적은 없다.

문15.

- ① 제압은 완전, 불완전 등 수준, 강도에 가깝다. 반면 승리는 승리하거나 승리하지 않거나이므로 FACT의 영역임.
- ② 정신력을 지닌 주체가 한국 팀이므로 선수들의 의욕을 강조했다.
- ③ 둘의 공통점을 묻고 있다.
- ④ FACT와 감정의 영역을 구분하라는 문제. 아쉽다는 감정을 드러낸 적은 없으니 정답은 ④번

문16. 추론적 사고(사실적 사고에 기반하라.)

1문단 : 이기적 이타주의 : 욕망하되 윤리 안에서 = 균형

2문단 : 과시적 소비 -> 이기적 이타주의

(단, 쇼핑을 줄이지 않는다. 통시적인 공통점.)

(전제 : 가치관과 태도가 변하면 소비 패턴과 품목도 바뀔 수 있다.)

3문단 : 이기적 이타주의의 특성 : 개인적 욕구(욕망)와 사회적 고려(윤리, 도덕) = 균형

1문단의 패러프레이징 및 동어 반복

(유의사항 : 사회복지사, 동정론자들이 아님.)

- ① 현재와 미래의 공통점임
- ② 가성비는 윤리도덕과 무관
- ③ 동물 보호는 생태계에 포함된다.
- ④ 사회복지사가 아님.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 균형일 뿐. 유의 사항 및 동어 반복을 통한 사항들에 집중하자. 정답!

문17. 다채로운 이유는 적층적(여러 층이 쌓임)이라서. 답은 ④번.

우화적은 동물을 통해서. 골계적은 풍자나 해학. 연행적은 말 그대로 공연되는.

문18.

- ①우연(ㄴ,ㄹ,ㅇ,ㅁ모음에 속함. 따라서 ㄴ만 탈락)ㅎ + 지않게 => 우연찮게.
- ②칠칠(ㄴ,ㄹ,ㅇ,ㅁ모음에 속함. 따라서 ㄴ만 탈락)ㅎ + 지못하게 => 칠칠치 못하게
- ④안절부절못하다. 정답!

문19. 딱 보니 공통점은 관형절. 다른 하나를 찾으니까 관형절의 범주를 머릿속에서 그려야

지.

관형절은 동격과 관계로 나뉜다.

관형절 : -을, -는, -ㄴ, -르, -던

유대종이 죽었다는 사실이 기쁘다. (유대종이 죽었다는 = 사실 : 동격 관형절. '사실'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내가 준 양말을 잘 보관해라. ('내가 양말을 주었다.'로 양말이 안긴절의 목적어로 들어감 = 들어갈 수 있으므로, 관계 관형절)

문20. 공정성의 필요조건

1. 치우치지 x (공평성)

2. 독립성 (외적인 것에 영향X)

<- 예시는 핵심에 협력하라.

1'. 공평하지 않으면 공정하지도 않겠지.(동전 사례)

2'. 독립적이지 않으면 공정하지도 않겠지.(동전 사례)

ㄱ. 패배하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다.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낼 수 없으면 따라서 독립적이다.

적절함.

ㄴ. 외적 장치가 있기에 공정하지는 않다.

그러나, 앞면->뒷면->앞면->뒷면 순서 혹은 뒷면->앞면->뒷면->앞면 순서일 것이므로, 즉,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는 않을 것이므로 공평하다.

ㄷ. 치우쳤으므로 공평하지 않고, 따라서 공정하지 않다. 적절함

정답 : ㄱ, ㄷ ②번.

(필요조건, 충분조건 정도는 알고 가자. 비가 내리려면 구름이 있어야 한다. 즉, 구름이 필요하다. 구름이 없으면 비도 없다. 여기에서 구름은 필요조건이다. 비가 내리는 것은 충분 조건이겠지. 구름은 기본으로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합되면 비가 내리는 것이다.

하나의 사례를 더 들어줄게. 커피를 마시려면 원두가 필요해. 원두가 없으면 커피도 없지. 원두가 커피가 되기 위한 필요한 조건임

필요조건의 표지는 'B이어야 한다, B가 없다면, B가 필요하다.' 등이다.

즉, 이 글은 1', 2'을 기억하면서 접근했어야 했다.)